

[특집·제2주제 발표문]

# 틴스타 프로그램 안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몸의 신학』의 적용\*

— “총체적인 상”을 중심으로 —



배 미 애

[착한목자수녀회 수녀]

1. 들어가는 말
2. 틴스타(TeenSTAR)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3. 틴스타 프로그램의 내용과 영성적 특성
4. “총체적인 상” 프로그램
  - 1)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 2) 몸의 혼인적 의미
  - 3) 몸과 감정
  - 4) 몸의 영성적 의미
  - 5) 성숙과 그리스천에게 있어 부부행위의 의미
  - 6) 자아를 확립한 인간됨
  - 7) 혼인 — 현신의 서약
  - 8) 부모됨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사랑이란 결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남자와 여자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랑이란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is)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되어가는’(becoming) 어떤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는 두 인격의 기여와 그들의 현신의 깊이에 달려 있다. 이 현신

\* 이 글은 201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필자는 2011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인재양성기금의 지원을 받아 석사논문을 연구하였고, 석사논문의 약 25%가 본 학술논문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은 ‘주어진’ 것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관능과 자연적 감수성에 뿌리를 둔 심리학적 경험들은 사랑의 ‘날재료’(raw material)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경험들을 사랑의 완성된 형태로 간주하곤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경향이고, 이러한 경향 밑바닥에는 사랑의 본성과 반대되는 공리적인 견해, 곧 소비자적 견해가 숨어 있다.<sup>1)</sup>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주저 『사랑과 책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날재료’를 어떻게 하면 잘 다듬고 익혀 성숙한 사랑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랑의 참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성윤리가 단순히 이론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실천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동기로 시작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서한—교회와 인류는, 젊은이들에게 위탁되어 있다」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고 성숙하며 책임지는 위대한 사랑을 하리라고 믿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과연 이러한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성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까?

성교육 현장에서 실천은 이론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의 인간의 몸과 성에 대한 가르침이 생명과 사랑의 가르침으로 현실에서 정당하게 실천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현대의 지나친 주관주의와 공리주의는 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자칫 빛바랜 보수적 원리로 해석하고 터부시하는 듯 보인다. 이에,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에서 바라본 성의 의미는 인간 실존의 진실을 환히 드러내 줄 것이라 희망하며 연구를 시작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과제를 풀어 보고 적용시킬 하나의 도구로 틴스타(TeenSTAR)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철학적, 인간학적 배경으로 담고 있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이야말로, 현대 세계의 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혼동으로 혼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랑과 책임』, 김을 옮김, 뉴멘, 2010, 198-199쪽.

들리며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돕는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에게 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틴스타 프로그램의 “총체적인 성”을 통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이 어떻게 적용되어 전달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 2. 틴스타(TeenSTAR)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

틴스타(TeenSTAR)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xt of Adult Responsibility)이라는 의미로, 십대들을 위한 가치지향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협조,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식력 양상을 경험적으로 배우도록 한다. 경험에 의거한 학습 방법은 십대 청소년(젊은이)들이 현재 자신의 생물학적인 능력을 장차 그들이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정서적, 이성적, 영성적인 모든 형태의 삶 속으로 통합하도록 도전한다.<sup>2)</sup>

틴스타 프로그램은 낙태가 합법적으로 시작된 1980년, 십대 임신과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의료선교수녀회 소속의 한나 클라우스에 의해 시작된다. 산부인과 의사인 한나 클라우스는 십대의 임신과 낙태의 원인이 성인의 책임 있는 판단의 부재와 십대 자신의 생식력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한나 클라우스는 소녀들에게 빌링스 배란법을 기초로 하여 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이성적, 영성적 측면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을 신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의 협조를 받아 개발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sup>3)</sup> 틴스타 프로그램은 현재 세계 37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2) 한국틴스타, 『틴스타—교사용 교재』, 한국틴스타, 2010, 20쪽.

3) 양주열, 「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생명교육—틴스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생명교육』, 한국천주교회 생명윤리연구회(편), 2006, 68쪽.

틴스타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독특한 형태를 담고 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생식력과 감정 양상에 대한 학생들의 발견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개별적인 후속 상담은 학생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념 위에서 성과 생식력에 대한 통합된 이해로 이끌어 준다. 셋째, 성인의 삶에 대해 청소년들이 찾고자 하는 해답을 적절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찾고 발견하도록 유도해 준다. 교사는 프로그램의 행동 목표와 정서 목표 진행과 학기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기술되어 있는 교과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과과정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은 이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틴스타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틴스타 교사 연수와 실습 과정을 마친 교사들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sup>4)</sup>

틴스타 프로그램의 진행은 주 단위로 하는데, 길게는 두 학기가 소요되며 이는 학습 내용과 체험, 그리고 생식력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그룹 운영을 바탕으로 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별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가 남녀공학인 경우 생식생리에 관한 단원은 남녀 분반하며 동성의 교사가 가르치게 된다. 틴스타 프로그램은 범종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은 특별히 기초적인 예방에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참가동의서를 작성한다. 참가동의서에는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고, 생식력 자각을 위한 기록을 하며 설문지를 작성하고, 후속 상담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중에 알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

4) 한국틴스타, 앞의 교재, 20쪽. 틴스타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가치관을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틴스타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틴스타 교사 연수와 실습 과정을 마친 교사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틴스타 교사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할 경우가 아니면, 다만 교과의 개요(20-25쪽)만을 질문자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

떠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가동의서는 학생이 먼저 작성하고 부모가 동의하여 작성한다.

틴스타 프로그램은 보조성의 원칙<sup>5)</sup>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아울러 적절한 성교육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프로그램에 부모 모임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부모 모임은 틴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부모가 참여하는 모임으로 틴스타 프로그램 시작 전과 중간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뒤 3회에 걸쳐 실시한다.

틴스타 프로그램 진행 중, 개별 후속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생식력 양상을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이해 정도를 확인 받으며, 성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도움을 받게 된다. 틴스타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모임을 통하여 부모는 자녀의 교육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학생의 기밀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또한 학생은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 나눌 수 있지만 동료 학생의 기밀은 지켜 주어야 한다.

### 3. 틴스타 프로그램의 내용과 영성적 특성<sup>6)</sup>

틴스타 프로그램은 독특한 내용과 영성적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부모의 협조,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식력과 감정의 양상을 경험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여학생은 점액관찰법을 배우고 자신의 생리주기를 관찰하면서 생식력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을 통합하게 된다. 남학생은 남성의 지속적인 생식력과 여성의 주기적인 생리적 기초 지식을 배우면서 자신의 감

5) 성교육은 부모의 기본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교육기관에서든 부모의 면밀한 감독 아래서 이루어지고 부모들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는 보조성의 법칙을 재확인하는 바이며, 학교는 올바른 의식을 가진 부모와 똑같은 정신으로 성교육에 협력함으로써 이 법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1975, 17항).

6) 한국틴스타,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 자료집」, 2010, 8~10쪽(참조: 한국틴스타, 『틴스타 — 교사용 교재』, 9-25, 205-207쪽).

정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몸에 대한 반응의 이해를 생식력의 신체적, 사회적, 이성적, 영성적인 측면과 통합하게 된다.

생식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면서 자존감을 상승시켜 준다.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에 깨어 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어 성 영역에 있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 준다. 또한 새 생명에 대한 개방성과 연관된 ‘혼인’이라는 결속 안에서 성적 자기증여의 자리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발견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자신의 인격 안에서 총체적으로 성을 통합하도록 도와 관계 맺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 자신의 몸에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깨어 있게 되면 성이 지닌 다른 측면에 대한 지식을 삶의 다른 국면 안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올바른 행동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자신의 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인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답을 찾고 발견한다. 또한 자신의 성소(부르심)에 대한 민감성을 불러일으킨다.

틴스타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는 성과 생식력에 관한 주제들은—생식생리, 인공피임, 성인성 질환, 청소년의 발달 심리, 사회 대중문화, 몸의 신학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이성적, 영성적인 측면에서 각 단원에서 밀도 있는 내용적인 특성을 담고 총체적으로 다뤄진다. 예를 들면 생식생리는 틴스타 프로그램 안에서 신체적인 측면과 연관된 교과과정으로 비춰지지만 동시에 정서적, 사회적, 이성적,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틴스타 프로그램의 영성적 토대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

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으며 각자 고유한 인성을 갖는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육화에 대한 이해는 인간으로 하여금 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한다. 생식력은 창조주로부터 책임과 선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인간은 그것의 주인이기를 원하고 그것에 감사한다. 완전하고 상호적인 성적 자기증여는 새 생명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혼인의 중심이 된다. 구원이 필요한 성의 영역을 하느님께서서 치유하시는 두 손에 놓기를 희망한다.

틴스타 프로그램의 영성적 토대가 복음에 있다고 하여 가톨릭 종교의 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틴스타는 종교적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창조질서 안에서 그들의 자리를 찾도록 그리고 그들 자신과 이성을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종교의 유무와 차이를 넘어서게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적합한 시기에 생식력 자각으로 출발하여 성의 다른 측면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도록 돕는다.

#### 4.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sup>7)</sup>

틴스타 프로그램 안에서 “총체적인 성”이란 자신의 성과 생식력을 배우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며, 일종의 공개 토론 프로그램이다. 원래는 젊은 여성과 남성을 위한 소모임 토론 프로그램으로 만

7) 한국틴스타, 『틴스타—교사용 교재』, 106~107, 113~114쪽.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에는 이미 『몸의 신학』을 담아야 할 주제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주제를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체적인 성” 안의 주요 『몸의 신학』적 주제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의 신학』과 “총체적인 성”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틴스타 교사 연수 혹은 “총체적인 성”에 참여하면 그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www.teenstar.or.kr](http://www.teenstar.or.kr)).

들었으나 성인이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대학의 선택에 따라 학점 이수 과목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남성은 13기, 여성은 14기로 진행이 가능하며 남성 교사가 남성을, 여성 교사가 여성을 만나는 것이 좋지만 남녀 합반 수업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전체 진행 안에 반드시 후속 상담의 시간이 배정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후속 상담은 동성의 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룹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남녀 합반이 가능하지만 한 명이더라도 반대하면 남녀 분반으로 진행한다. 또 남녀 합반으로 시작한 반이라도 구성원의 민감도에 따른 단원은 분반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도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토론을 원활하게 돕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여, 그룹원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요약 정리해 준다. 참가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준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단원이 끝나면, 그 다음 단원부터는 정보를 위한 도입 부분에서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45분은 그룹 토론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급적 교사 점검판<sup>8)</sup>을 이용하면서 전체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전체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총체적인 성” 교육과정<sup>9)</sup>

기수	여성 프로그램	남성 프로그램
1	A. 프로그램 개관	A. 프로그램 개관
2	A. 생식생리, 피임 B. 몸의 신학*	A. 성욕 발동
3	A. 스트레스 주기 B. 몸의 혼인적 의미*	A. 성 심리 발달 B. 몸의 신학*
4	A. 생식 양상의 나눔 B. 호르몬 주기와 감정 양상의 조화 C. 감정의 발생: 정신/육체 혹은 영혼과 정신*	A. 여성의 생식 주기 B. 몸의 혼인적 의미*

8) 같은 교재, 122쪽.

9) 같은 교재, 108-118쪽. [표 1]의 (\*) 주제들은 틴스타의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안에서 특별히 『몸의 신학』의 국면이 두드러지는 부분이지만 다른 기수의 주제에서도 『몸의 신학』적인 측면을 포함시켜 영성적인 면으로 다루어 한다.

5	A. 성적인 결단 내리기 B. 사회의 규범과 나의 규범 C. 몸의 영성적 의미*	A. 자기실현의 목표 B. 감정의 발생: 정신/육체 혹은 영혼과 정신*
6	A. 성기성과 생식력 B. 성 심리 발달과 자아발달 C. 금욕 D. 자연가족계획의 역사와 원리 E. 혼인 행위의 의미*	A. 성적인 결단 내리기 B. 사회의 규범과 나의 규범 C. 몸의 영성적 의미*
7	A. 자연가족계획의 기타 방법 B. 인공피임으로 인한 성교의 본질* 의 변화	A. 성기성과 생식력 B. 성 심리 발달과 자아발달 C. 금욕 D. 자연가족계획의 역사와 원리 E. 혼인 행위의 의미*
8	A. 특별한 상황 B. 위생학	A. 자연가족계획의 여러 방법 B. 각종 성인성 질환 C. 인공피임과 성교의 본질*의 변화
9	A. 성인성 질환	A. 성(Gender)의 차이 B. 관계와 감정 C. 서약과 관계된 감정의 영향
10	A. 성(Gender)의 차이 B. 관계와 감정 C. 서약과 관계된 감정의 영향	A. 생활양식 B. 서약*
11	A. 생활양식 B. 서약*	A. 자아확립 B. 자아확립과 가족 C. 자아확립과 하느님*
12	A. 자아확립 B. 자아확립과 가족 C. 자아확립과 하느님*	A. 혼인 B. 가치와 선택 C. 성과 생식력 D. 혼인성사*
13	A. 혼인 B. 가치와 선택 C. 성과 생식력 D. 혼인성사*	A. 부모됨* B. 출산 및 양육하기 C. 인공임신과 부모됨
14	A. 부모됨* B. 출산 및 양육하기 C. 인공임신과 부모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특별히 더 두드러지게 몸의 신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기수의 내용을 통해 『몸의 신학』적 내용이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탐구해 보겠다.

<b>제1기</b>
<p>A. 프로그램 개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디오 &lt;당신의 특별한 조짐&gt;<sup>10)</sup>을 보여 주고 토론한다.</li> <li>2. 참가자의 기대치와 우선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li> </ol> <p>B. 생리주기 학습표<sup>11)</sup>를 소개한다.          남성 그룹은 &lt;생애 최초의 날들&gt;<sup>12)</sup>을 보여 주며, 감정기록표<sup>13)</sup>를 소개한다.</p>
<b>제2기</b>
<p>A. 토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란, 여성의 생식기관, 점액, 정자의 생존 기간, 남성의 신체 구조.</li> <li>2. 피임약과 피임기구 용도의 구성.              남학생은 성욕 발동과 발기에 대해 토론한다.<sup>14)</sup></li> </ol> <p>B. 만약 점액이 시작되었다면, 생리주기 학습표를 점액관찰기록표<sup>15)</sup>에 옮겨 적는다.          도표를 후속 상담일지에 기록한다(여학생을 위한 틴스타, 단원 1~4 참조).</p> <p>C. 참가동의서<sup>16)</sup>를 작성한다. 부모의 서명은 받지 않아도 된다.</p> <p>D. 몸의 신학: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함께 하느님의 총만성을 드러낸다.</p>

10) 동영상 <당신의 특별한 조짐>은 틴스타 프로그램의 소개 모임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생식력 자각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11) 같은 교재, 223쪽.

12) 동영상 <생애 최초의 날들>은 남성의 생식생리의 원리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남성의 생식력 자각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13) 같은 교재, 227쪽.

14) 같은 교재, 160~170쪽. 고등학생을 위한 남학생 단원 2~3을 위한 교사용 참고 자료를 참고하면서 진행한다.

15) 같은 교재, 225쪽.

16) 같은 교재, 112쪽(여성), 119쪽(남성).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의 참석자들은 성인 남녀이므로 “참가동의서”에 부모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 1)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2기에서 『몸의 신학』은, 생식기는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품고 탄생시키는 소중한 몸의 일부분임을 통합적으로 알려 준다. 단순히 남녀의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식생리 원리 안에 담겨 있는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생식생리의 원리 안에서 남녀 상호 보완성과 협조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누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의 몸에 담겨 있는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숙고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 생명은 그것을 다시 선물로 주고자 받은 것이다”<sup>17)</sup>라고 말한다. 인간의 몸은 상호 선물로서 나타났다고 인간의 신원에 대해 『몸의 신학』에서 언급한다.

사랑에서 샘솟아 나오는 선물로서의 창조의 신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몸과 성(性)의 전체 진리 속에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인간 실존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는데, 그 진리는 인격 간의 친교에 대한 단순하고 순수한 진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여자를 보고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23)라고 외쳤을 때, 그는 둘의 인간적 신원을 단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탄함으로써, 그는 ‘보라,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몸울!’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sup>18)</sup>

생식생리의 원리를 통해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셨던 원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도록 젊은이들을 도울 때, 인간 몸에 담겨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생명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각 사람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지만, 혼자서는 결코 사랑을 나눌 수도 생명을 만들 수도 없다. 그것은 두 인격 간의 친교에 대한 하나의 순수하고 단순한 진리다. 서로에게 사랑과 생명의 선

17)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92항.

18) Michael Waldstein,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 A Theology of the Body*, Pauline, 2006, p.183(TOB 14:4).

물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남자와 여자의 몸에 나누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와 상대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가 된다. 성경은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라고 말한다. 하느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인격적 존재로서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육체는 사랑의 근본적 선물로서 창조의 증인이 되며, 그와 같은 선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사랑의 증인이 된다”<sup>19)</sup>고 했다. 인간의 육체는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적 사랑을 알아듣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함께 생명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느님의 충만성을 드러내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이 인간을 그의 모습과 닮음 안에 창조함으로써 선포한 이 진리는 사랑함으로써만이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랑과 진리 안에 결합된 인격의 일치와 삼위일체 하느님과 그의 일치 사이의 어떤 유사성을 시사한다. 이 유사성은 이 세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줌으로써만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음을 밝혀 준다.<sup>20)</sup> 성적인 존재인 남자와 여자의 몸은 서로 사랑하며 관계 맺도록 부름 받았음을 나타낸다. 특별히 생식생리의 원리 안에 이러한 인격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격들의 친교를 통해 하느님 닮은 모습이 된다는 점을 젊은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9) *Ibid.*, p.183(TOB 14:4).

2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24항.

## 제3기

A. 특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무배란의 특별 상황을 가르친다. 학생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 감정을 감정기록표에 작성하는 법을 소개한다(남학생을 위한 틴스타, 단원 3 참조).

B. 몸의 혼인적 의미

## 2) 몸의 혼인적 의미\*

3기에서는 여성의 생리주기의 다양한 양상과 그 안에서의 특별한 상황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여성 호르몬 주기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도 발견하게 된다. 호르몬은 화학물질로 우리 몸에서 혈류를 타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정한 기관에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호르몬에 의해 몸의 기관과 세포는 반응을 한다. 호르몬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상응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에 미치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은 에스트로겐 수준이 낮은 월경 바로 전뿐만 아니라, 황체화 호르몬의 급상승 시기에도 현저하다. 감정에 미치는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자료에서 월경전증후군의 치료법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프로게스테론의 부족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불감증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sup>21)</sup>

이렇게 생리주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몸과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바로 생식력 자각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사랑과 생명과 관련된 호르몬의 기능과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몸의 혼인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은 여성과 남성이 사랑을 나누도록 돕기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하는 데 관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21) 같은 교재, 145쪽. 여성 생리주기 안에서 월경 전에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PMS)은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중 우울, 분노, 좌절감 등 감정의 변화도 종종 발견되는 증상이다.

따라서 3기에서는 감정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몸의 혼인적 의미’를 성찰하도록 돕는다. 몸은 관계를 맺기 위한 ‘혼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몸은 친교를 나누라고 알려 준다. 몸의 언어는 특별한 신호를 보내며 생식력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낸다. 이 기수에서 젊은이들은 관계 안에서 친교를 나누라는 몸의 신호 체계가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또 몸과 정서가 어떻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 관찰을 시작한다.

감정(e-motion)은 우리를 움직이게(motion) 만든다.<sup>22)</sup> 분노가 우리를 휘저어 놓고, 연민이 우리를 움직이며, 슬픔과 죄의식이 우리를 가라앉게 한다. 감정의 체험은 몸을 지님으로써 생기는 한 부분이다. 분노, 연민, 기쁨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성(性)의 한 부분이다.<sup>23)</sup> 몸과 관련된 감정을 읽어 내고 인식하는 것은 생식력에 깨어 있음이다.

창조의 순간부터 인간 몸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곧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능력에 깨어 있음이다. 여성을 보다 여성스럽게, 남성을 보다 더 남성스럽게 돕는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역할은 단순히 성적 충동이나 성적 욕구에만 상응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정서적 변화는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관여하기도 한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가르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과 상호 보완성에 대한 자아인식과 그것에 선행한 고독은 인간의 시원적 경험 밑바탕에 깔려 있다. 아담은 홀로 있음에 대한 고독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아차린다. 또한 상호 자기를 증여하는 행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이와 같은 궁극적인 자기계시 안에는 생명을 전달하는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한 것이다.

22) 같은 교재, 290쪽.

23) Evelyn Eaton Whitehead and James D. Whitehead, 『그리스도인의 성과 사랑』, 최성기역, 가톨릭출판사, 2000, 64쪽.

성은 인격의 한 기본 요소입니다. 곧 존재 양식의 하나이고 표현 형태의 하나이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형태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기증여의 사랑에 대한 능력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표를 지닌 육체를 통한 혼인의 의미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창조의 신비 안에서 볼 때, 인간의 육체와 성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은 전체 자연 질서에서처럼 생식과 번식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시초부터’ ‘혼인’의 속성, 곧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격체인 인간은 이 자기증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의 선물이 되며, 그 사랑은 인간 존재와 인간 실존의 참의미를 실현시켜 줍니다. 사랑의 모든 형태는 언제나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닐 것입니다.<sup>24)</sup>

창조의 순간부터 ‘혼인적 의미’를 담게 된 몸은 인간의 천부적인 성소다. 이 천부적인 부르심인 사랑의 성소는 모든 사람의 몸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울 수 없도록 새겨져 있다. 우리의 몸에 각인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은 친교를 나누도록 불리웠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것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하고자 한 몸의 혼인적 의미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몸의 혼인적 의미’가 창조의 순간부터 친교를 이루라고 남자와 여자의 몸에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sup>25)</sup>

젊은이들은 자신의 몸에 담겨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과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자신의 몸을 관찰할 것이다. 따라서 틴스타 교사는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변화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요한 바오로 2세가 가르친 ‘몸의 혼인적 의미’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럴 때 젊은이들은 몸이 단순히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기체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인격체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여 발견한 ‘몸의 혼인적 의미’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으로 남지 않고, 자신의 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선(善)으로 발견되는

24) 교황청 가정평의회, 『인간의 성(性) 그 참모습과 참뜻—가정교육을 위한 지침』, 1995, 10항[참조: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인간의 사랑에 관한 교육 지침』(*Educational Guidance in Human Love*), 1983, 4항; Michael Waldstein, *op.cit.*, pp.185~186(TOB 15:1)].

25) Christopher West, *Theology of the Body Explained: A Commentary on John Paul II's "Gospel of the Body"*, Pauline, 2003, p.79.

주관적인 자각이 될 것이다.

<p>제4기 여성주기의 감정 양상: 친구 및 가족 관계 안에서</p> <p>A. 생식력 양상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친구나 가족과 생식력 양상을 나누어 보았는가? 나누었다면 느낌이 어떠하였는가? (나눔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서) 생식력 양상을 나누면서 고유한 자기를 드러내는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가?</p> <p>B. 우리의 호르몬 주기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조화되고 또 빛나는가?</p> <p>C. ‘감정’이란 단지 마음/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정신에 ‘감정’이 존재하는 것인가?(성 이냐시오의 영적 훈련 참조)</p>
--

### 3) 몸과 감정\*

여성 호르몬 주기 안에서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기에서 젊은이들은 여성 생리주기 안에서의 감성 양상에 대해 관찰한 것을 나누게 된다. 감정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지, 마음과 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과 정신에 존재하는 것인지 질문하면서 호르몬 주기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나누게 된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사건, 일, 자연, 예술에 대한 느낌은 평소와 다르게 받아들인다. 좌절감을 느낄 때 모든 것에 의욕이 없고 서글픔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울 때 평소에 우리를 활기차게 했던 것이 의미 없이 다가온다. 두려움과 극도의 긴장에서 몸은 움츠러든다. 도대체 이러한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요한 바오로 2세는 감정을 감각 인상<sup>26)</sup>과 구분한다. 인상의 내용

26) 감각적 상은 종종 특수한 느낌이나 반응과 연계되어 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인상을 남겼다’고 말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을 인지할 때 어떤 뚜렷한 자극, 즉 우리 의식에 인상을 강하게 각인하는 자극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이다. 인상이 감정과 결합되면, 그것들의 공통적인 대상은 인간 의식 안에 더 분명하게 각인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우리 의식에는 대상의 상뿐 아니라 대상의 가치도

은 대상의 상이지만, 감정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대상에서 발견한 어떤 가치다. 감각 인상은 내용에 대한 반응이고 감정은 가치에 대한 반응이다. 감정이 본래 감각적인 것이고 육체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감정은 정신적인 가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물론 감정이 생겨나기 위해서 가치를 보고 듣고 상상하고 기억해야만 한다. 감정은 다른 인격을 하나의 가치로 경험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남자와 여자 두 인격이 서로를 하나의 가치로서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sup>27)</sup>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몸에 담아 주신 영혼의 기능 안에 이러한 감정의 능력 역시 넣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지성적인 능력과 함께, 조절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의지적인 측면들도 함께 넣어 주셨다.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지만 인간처럼 인식하고 식별하며 조절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적 능력은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인 것이다.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에서 “심정의 여러 변화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느끼고 알아차려서 선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배척하기 위한 규칙”<sup>28)</sup>을 소개한다. 느끼고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몸을 더욱 인간다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의식하고 선한 의지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훈련은 음욕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도울 것이다.

“사람과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 2,25)는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부끄러움 없음’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의 가르침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느꼈을 감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시원적 벌거벗음의 체험은 태초의 남자와 여자가 발가벗은 몸을 통하여 보여 주는 서로의 경험

나타나서, 그 결과 인식이 정서적 색채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사랑과 책임』, 146~147쪽).

27) 같은 책, 146쪽.

28)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05, 313번.

을 말한다. 그들의 벗은 몸이 단지 외적인 국면만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된 존재성을 서로 전달받고 참여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몸의 체험을 통해 인간 몸이 내면으로부터 외적인 실재를 지각함으로써 인격적인 한 인간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다.<sup>29)</sup>

요한 바오로 2세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심저에 새겨 주신 시원적 순수성의 반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내적 진리와 만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 놓은 ‘혼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식력의 변화들에 깨어 있고 알아차리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민감하게 감정을 인식하며 더욱 올바르게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젊은이들에게 생식력 자각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의 인식과 선택의 훈련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가르친,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심어 주신 ‘몸의 혼인적 의미’의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식력이라는 몸이 지닌 능력은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과 몸에 불어넣어 주신 영혼의 기능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지성과 의지의 행위 안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제5기 성적인 결단 내리기 성적인 충동이 우리를 몰고 가는가, 아니면 우리의 조절하에 이루어지는가?</p>
<p>A. 사회의 규범 B. 나의 규범 C.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 D. 몸의 영성적 의미</p>

29) Christopher West, *op.cit.*, pp.90-94.

#### 4) 몸의 영성적 의미\*

5기에서 『몸의 신학』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몸을 영혼의 단일체로서 이해시키는 데 있다. 인간의 독특함을 표현해 주는 것은 몸이다. 인간은 모두 각각 육체적, 정신적,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하나의 독특한 개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 독특함이 인간의 영적 본성에만 기인한다거나 육체적인 본질로부터만 나온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써 지금의 우리 각자가 있게 된다. 인간은 양자 모두를 포괄하는 독특한 하나의 인격적 결합체이기 때문이다.<sup>30)</sup>

몸은 사실상,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신비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이며 거룩한 것을 이 세상에 보이도록 하는 표징이다. 인간의 몸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감춰진 신비를 세상의 가시적인 실재 속으로 옮기는 표징이 되도록 창조되었다.<sup>31)</sup> 사실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정신과 사랑을 몸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 서로의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재를 만난다. 몸은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대한 친교의 표징이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찰한 창세기의 아담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몸, 비가시적인 차원을 지닌 몸의 체험을 깨닫는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창조주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을 본다. 아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몸의 결합체, 곧 육체와 영혼의 복합체로서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특별한 책임을 지닌 존재다.<sup>32)</sup>

단순히 느낌과 감정만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몸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30) 틴스타 같은 교재, 354-355쪽.

31) Michael Waldstein, *op.cit.*, p.505(TOB 96:6).

32) 앤서니 퍼시, 『쉽게 쓴 몸의 신학』, 김한수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78쪽.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자유, 헌신, 사랑, 생명 등을 말한다. 때문에 사랑에는 특별한 책임이 존재한다. 그것은 삶과 행위에서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된 다른 인격, 즉 자기를 선물로서 증여하는 결과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인격에 대한 책임이다. 사랑에 대한 책임은 인격에 대한 책임에서 나오고 인격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된다.<sup>33)</sup>

젊은이들이 성적인 결단을 내릴 때, 과연 이 관계가 나의 존재를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성숙한지,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 이 관계가 헌신적인 관계로 이어질지, 나는 다른 인격에 대한 참된 선에 대해 염려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성적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젊은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 현대의 성적인 문화 흐름 안에서 성적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절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지녔음을 질문과 토론 안에서 깨닫게 도움을 주게 된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지배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인격적인 선물일 수 있다. 몸이 지닌 영성적 의미를 숙고하면서 성적 결단을 내릴 때 더욱 자유롭게도 책임감 있게 될 것이다.

로날드 롤하이저(Ronald Rolheiser)가 말한 것처럼, 몸의 영성적인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다.<sup>34)</sup> 단순히 현대의 성적 문화 흐름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식과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결단 아래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성적인 충동이 우리를 몰고 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조절하에 통제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33) 『사랑과 책임』, 184쪽.

34) 로날드 롤하이저, 『거룩한 갈망』, 한현 옮김, 참사람되어, 2004, 3-5쪽. 이 책에서 그는 영성이란 결국 욕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며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적인 충동을 우리의 조절에 놓을 때라도, 객관적 가치 질서의 인식, 즉 인격의 가치가 성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인식 없이는 어떠한 자제도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인식은 실천적 인식, 즉 행위를 야기하는 인식이다. 성적 자기제어가 실현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관능과 감상이 성적 가치에 반응할 때마다 성적 가치에 대한 인격 가치의 우위성을 인식해야 한다.<sup>35)</sup> 욕망의 제어는 욕망을 제어하는 인격의 완전성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할뿐 아니라 인격의 세계, 특히 다른 성을 지닌 두 인격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sup>36)</sup>

선택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가치와 위대함은 삶이 결정할 것이다. 관능적, 감정적 반응들이 약해지고 성적 가치 자체가 점차 효력을 상실할 때, 바로 그때 선택의 가치는 엄격한 시험을 겪게 된다. 이때 남는 것은 인격의 가치 외에는 없다. 이때 사랑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만일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자기 선사여서 그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면, 사랑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더 강고해져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이다.<sup>37)</sup>

현대의 거대한 성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성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성적 주체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 안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내 몸 안에 담겨 있는 생명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적인 충동에서 성적 자기제어에 대한 인격적 가치의 우위에 대한 의식적 선택은 자신은 물론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한 성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 넣었다. 가능할 뿐 아니라 인간이란 원래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몸의 신학』을 통해 가르친다.

35) 『사랑과 책임』, 284쪽(참조: 『사랑과 책임』, 143~167쪽).

36) 같은 책, 280쪽.

37) 같은 책, 190쪽.

<p>제6기 성기성(Genitality)과 생식력(Generativity), 그것은 무엇인가?</p> <p>A. 성 심리 발달을 개관하고(교사용 도움자료 참조), 자아발달 단계라는 맥락으로 배열해 본다.</p> <p>에릭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단계 &lt;유년기와 사회&gt;</p> <p>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 충동과 희망          자율성 대 수치감과 회의감: 자기통제와 의지력          숭선수범 대 죄의식: 방향과 목적          근면성 대 열등감: 방법과 경쟁          정체감 대 역할 혼미: 헌신과 충실          친밀감 대 고립감: 협력과 사랑          생식력 대 침체성: 출산과 보살핌          자아통합 대 절망: 재통합과 지혜</p> <p>B. 금욕: 주기적인가 또는 전면적인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각 단계의 어떤 부분에 들어맞는가? 성숙의 단계에서는?          미혼자에게만 필요한가? 혹은 기혼자에게도 필요한가?          (고등학생을 위한 틴스타 단원 10, 교사용 도움자료 - 윌리엄 버튜 신부의 ‘책임’)</p> <p>C. 자연가족계획의 역사와 원리</p> <p>D. 크리스천에게 있어 부부행위의 의미</p>
--

### 5) 성숙과 크리스천에게 있어 부부행위의 의미\*

6기에서는 젊은이들과 함께,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사회심리적 발달 단계 이론 안에서 성숙과 금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나누어 보고 금욕 안에 담겨 있는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자연가족계획의 역사와 원리를 제시하면서 부부가 자연가족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부부행위의 본질적 의의를 실현하게 되는지 나누게 된다. 여기에서 『몸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부부행위의 의미를 사회심리적 발달 단계 안에서 성숙이라는 측면과 함께 성찰하도록 젊은이들을 돕게 된다.

성 호르몬이 발달하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이전에는 겪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한다. 동시에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요소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 이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성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게 된다. 생식기를 결합하려는 욕망과 능력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생식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생식력이 왕성한 남자와 여자의 몸의 결합 안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인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맺게 되는 성적 결합은 진정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젊은이들이 성인의 행동에 연루될 때, 그들의 정서적인 성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 성행위의 연루로 인해, 자기 행동이 함축하는 바를 아직 정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에 몰두함으로써 훨씬 더 충동적이고 고착된 사고의 수준에 머물기 쉽기 때문이다.<sup>38)</sup> 때문에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적 결합 능력을 부모가 될 수 있는 생식력이라는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금욕의 덕목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문화 안에서 금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금욕은 성숙하기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통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령 우리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통제하는 것을 배웠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걷거나 말할 때 우리는 수많은 근육을 제어하는 것을 배웠기에 지금 걷기도, 말하기도, 또 뛰기도 하는 것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능동적인 통제에 대한 훈련과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분명 능동적인 통제와 강박으로 인한 억제는 다른 의미다. 능동적인 통제란 강박이 없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리는 행동을 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호르몬의 변화와 생리적인 발달은 신체적, 심리적인 성숙을 이

38) 같은 교재, 131~132쪽.

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또한 성숙을 향한 하나의 과업이다. 미혼자에게도,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독신자 혹은 동정자에게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성욕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보다 성숙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다. 결국 사랑이란 관계를 맺는 능력의 발달이기 때문이다.

성적 에너지를 이기심, 자기의 욕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성적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일은 총체적인 인간 성숙으로의 초대에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게 응답하는 것이다. 그 응답은 결혼한 부부, 독신이나 동정자 등 그 어떤 형태의 삶 안에서 도 성장을 위한 과제다. 이 과제에는 늘 위기가 따르지만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는 성숙으로 한걸음 더욱 나아가 성장하게 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 생명」 회칙이 가르치는 자기 지배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결의 덕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언급한다. 곧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른 수태 조절을 위해 부부가 일시적인 금욕을 할 경우, 부부는 정결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9)</sup> 사실상 이러한 이유로 자연가족계획법을 실천하는 동안 부부는 성숙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식력 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연가족계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 안에 대화, 희생, 책임 있는 결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연가족계획법을 실천하는 동안 부부는 기다림, 인내, 헌신, 신뢰 등 인격적 덕목이 성장하는 체험을 한다.

인간은 성(性)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거기에 필요한 도덕적 요구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그러할 때 성(性)은 상호 인격적 대화를 지향하고, 인간의 완전한 성숙에 도움을 주며,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 주도록 사람들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창

39) Michael Waldstein, *op.cit.*, p.635(TOB 124:6)(참조: 갈라 5,25).

조질서와 출산력과 생명 전달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재적 목적에 충실한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출산은 성의 의미이며 가치이기 때문이다.<sup>40)</sup> 자연가족계획의 원리와 철학은 이러한 성의 의미와 가치를 거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부부의 성숙에 도움을 준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교는 부부일치와 자녀출산을 분리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 몸 안에 넣어 준 진리의 의미를 왜곡하기 때문이다.<sup>41)</sup> 몸이 지닌 혼인적 의미를 왜곡할 때 부부사랑은 결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6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기수들(7~9기)로 이어져서 피임약과 피임도구가 어떻게 성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지 토론으로 이끌며 진행할 수 있게 된다.

<p><b>제7기 자연가족계획의 기타 방법들</b></p> <p>A. 체온 등의 조짐을 이용한 생식력의 도표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르침.                  B. 자연가족계획의 기타 방법들(고등학생을 위한 틴스타 단원 12, 교사용 도움자료와 유인물).                  C. 피임기구와 피임약이 성교의 본질을 어떻게 변질시키는가?</p>
<p><b>제8기</b></p> <p>A. 특별한 상황을 개관한다.                  B. 일반적인 위생학, 질 출혈, 질염,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
<p><b>제9기 각종 성인성 질환 그리고 에이즈</b>                  (고등학생을 위한 틴스타, 단원 12 참조)</p>
<p><b>제10기 성(gender)의 차이점: 느낌상으로</b></p> <p>도움자료: 길리간을 비롯한 기타 학자들은 독립적인 성향이 남성의 가장 강한 욕구인데 반해서, 여성에 있어서는 상호의존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가르친다. 여대생과 그들의 선생님들은 이러한 학설을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지 또는 배척할 것인지를</p>

40) 성교육에 관한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지침, 「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 지침」, 1983, 32항.

41) 요한 바오로 2세는 몸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할 부부행위를 사랑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생식력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부부행위 속에서 출산적인 국면을 일치적인 국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두 면이 부부행위의 내밀한 진리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임행위가 지닌 본질적인 악을 부부행위의 내밀한 진리의 결핍으로 본다[참조: Michael Waldstein, *op.cit.*, pp.632~633(TOB 123:6~7)].

<p>의식 속에 분명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설에 대한 불분명한 감정은 여학생의 학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p> <p>원리 제시: 사고에 있어서 여성은 좀 더 직관적인 편이며, 남성은 보다 구체적이다.</p> <p>A. 위 원리가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많다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런 관계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p> <p>B. 관계에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실현의 목표들 — 그것들은 무엇인가?</li> <li>2. 우열의 순위에서 남녀관계의 서열은?</li> <li>3. 남녀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li> <li>4. 남녀관계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가?</li> </ol> <p>C. 관계에 있어서의 감정의 영향</p> <p>점액관찰기록표에 기록된 감정을 잘 살펴보고 토론으로 들어간다. (남학생을 위한 틴스타, 단원 3의 감정 기록에 대한 지시사항 참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정이 다음 상황에 처했을 때를 회고해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계가 좋았을 때</li> <li>② 관계가 어긋났을 때</li> </ol> </li> <li>2.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는가?</li> </ol> <p>D. 서약과 관계된 감정의 영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와 맺은 중대한 서약에 대해 말해 보시오.</li> <li>2. 이러한 서약에 따른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가?</li> <li>3. 부정적인 감정이 서약의 내용에 끼친 영향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감정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조절할 것인가?</li> </ol>
<p><b>제11기 생활양식: 그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b></p> <p>A. 생활양식이 어떻게 서약과 관련되어 있는가?</p>
<p><b>제12기 자아를 확립한 인간이 됨</b></p> <p>A. 가족들의 기대</p> <p>B. 자신의 기대</p> <p>C. 서로 간의 기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p> <p>D.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p> <p>E. 자기중심형 인간과 하느님께 예속된 인간이 되는 것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p>

## 6) 자아를 확립한 인간됨\*

인간은 생각의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문화 안에서 여성과 남성으로서 성적 자아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받는다. 우리 사회가 지닌

남성적, 여성적인 것에 대한 기대는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성(Gender)에 대한 이미지가 각 개인이 지닌 성(Sexuality)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성숙한 여성과 남성으로서, 자신감과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적 기대와 자신이 이해하는 성(Sexuality)의 기대와 모순되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sup>42)</sup> 젊은이들과 10기에서 성(Gender)의 차이점을 감정과 서약과 연결해서 토론한다.

10기의 주제는 11기의 생활양식과 서약의 주제와 연결된다. 특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서도 반복되는 좋지 않은 생활양식은 서약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관계와 정서, 그리고 영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킨다. 자신의 즐거움에만 빠진 생활양식이 습관이 되어서 서약생활 안에서 참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대신할 때, 그 생활양식이 미치는 영향은 자신의 서약생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과연 각자가 지닌 생활양식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지, 또 생활양식이 서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토론한다.

10기와 11기는 12기의 자아확립이 된 인간됨에 대한 토론으로 연결된다. 인간은 사회문화적이며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性)에 대한 자기 이해와 확립은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인가에 대한 생물학적 몸에 의해 규정된 자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회문화 안에서 여성적, 남성적으로 형성된 성별(Gender)적 존재로 어떠한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sup>43)</sup> 자아를 확립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과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남자와 여자의 참된 인간됨의 모습은 인간 경험의 뿌리에 남아 있다. 너무도 내밀하게 일상생활과 혼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특별한 내용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바로 그 참된 인간됨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찾아 들어가

42) Evelyn Eaton Whitehead and James D. Whitehead, 앞의 책, 60-63쪽.

43) 같은 책, 58-68쪽.

서 인간의 시원적 경험, 원죄 이후 역사적 인간의 체험, 구원된 인간 곧 하늘나라에서의 몸의 의미를 성찰한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가르치는 인간 몸의 체험을 탐구해 보면 인간됨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인간이 인격을 지녔다는 것은 가시적 인 세계, 즉 살아 있는 세계의 다른 피조물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지식의 수준에서 자기 인식이 발전한다고 한다.<sup>44)</sup> 아담은 그가 동물과는 다른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인격으로서의 그 자신을 인식했다.

아담의 고독은 인간의 특성인 인격을 알아차리는 체험이며 동시에 다른 이와 함께 일치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일치를 향한 남자와 여자의 몸은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sup>45)</sup> 서로 사랑하며 자신이 상대방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참된 자유가 따를 때 가능하다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말한다.<sup>46)</sup>

인간은 몸과 마음을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내어 놓을 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 자기중심형 인간은 이러한 인간됨을 잃어버린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찰한 성 바오로의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갈라 5,17)로부터 우리는 자기중심형 인간과 하느님께 예속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다.

자기중심형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갈라 5,20~21)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참조: 갈라 5,22~24)와 함께한다. 하느님께 예속된 인간은 이러한 내면적

44) Michael Waldstein, *op.cit.*, pp.148~149.

45) Mary Healy, *Men and Women are from Eden — A Study Guide to John Paul II's Theology of the Body*, Servant Books, 2005, p.24.

46) Michael Waldstein, *op.cit.*, p.186(TOB 15:2)[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4항].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누리는 내면적 기쁨은 확실히 자기중심형 인간이 욕망하는 것과 다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내면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절제의 덕을 강조했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절제함으로써 자신이 자기 지배를 한다는 것을 증거 하며,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서 인격적인 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47)</sup> 절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더욱 높이 경험하게 된다.

자아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 젊은이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참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갈등이 적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이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기 때문이다.<sup>48)</sup> 사랑으로 나를 지어내신 창조주의 뜻 안에서 각 사람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자신의 실존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손상될 수 없는 사랑의 존재임이 확인된다.

#### 제13기 혼인

- A. 가치 구조
- B. 배우자 선택
- C. 헌신의 서약
- D. 성·생식력
- E. 혼인성사 — 무엇인가?

왜 로버트 브링스 신부는 ‘혼인을 교회의 제정권이다’라고 제시하는가?  
(참조: 종교적인 보충자료, 로버트 브링스 신부의 ‘몸의 신학’<sup>49)</sup>)

47) *Ibid.*, pp.324-325(TOB 49:6).

48) 교황청 가정평의회, 『인간의 성(性) 그 참모습과 참뜻 — 가정 교육을 위한 지침』, 1995, 9항.

49) 같은 교재, 353~364쪽.

## 7) 혼인 — 헌신의 서약\*

최근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면서, 저출산 현상과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는 기혼 여성의 출산을 자체가 하락하는 요인과 함께 초혼 연령 상승의 배경,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미혼남녀의 비율 증가, 결혼지연 현상 등이 나타난다.<sup>50)</sup> 연구 결과는 결혼, 출산, 성역할 규범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현상임을 암시한다.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배우자 선택뿐 아니라 성과 출산 등 서약생활 전반에 상호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치관은 “인간이 삶이나 세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민중국어사전』, 2010)을 의미한다. 13기에서 젊은이들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토론하는 중에 성사로서의 혼인생활 안에서 성과 출산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혼인은 다양한 가치 구조로 시작할 수 있다. 가령 결혼이 사랑으로 이끌 수 있지만, 반드시 결혼이 사랑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가치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sup>51)</sup> 다양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있겠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며 평생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목적을 갖고 혼인을 선택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혼인을 단순히 남녀 간의 성적 관계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제도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제도’(institution)라는 말은 ‘제정된’ 어떤 것, 혹은 ‘설립된’ 어떤 것을 뜻한다. 혼인은 상호 인격적인 일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일이다. 성적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은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관계를 사회 안에

50) 진미정·정혜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추세 연구: 2005,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2010, 31-32쪽.

51) Evelyn Eaton Whitehead and James D. Whitehead, 앞의 책, 241-242쪽.

서 정당화해야 한다. 이것이 혼인 제도의 역할이다. 혼인은 독특한 상호 인격적 구조를 지닌 독립적인 제도다.<sup>52)</sup>

가톨릭 신앙은 혼인을 은총의 성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은총의 성사로서의 혼인은 창조주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는 하느님 앞의 인간의 의화(義化)는 본질적으로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인간은 교회가 집행하는 성사를 통해 은총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이를 위한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부부관계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성사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sup>53)</sup>

요한 바오로 2세는 “혼인은 모든 성사의 원형”<sup>54)</sup>이라고 한다. 모든 성사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와 일치할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혼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는 부부애의 표상과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깃들여 있다.”<sup>55)</sup> 따라서 혼인 서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혼인생활 안에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약속은 서약이다. 서약은 상거래를 위한 계약과는 다르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서로 돕겠다는 약속이다.

혼인 서약은 자유롭고, 전적으로 충실하게 그리고 결실 풍성하게 일생 서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다. “나( )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거나 성하거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sup>56)</sup> 신랑, 신부가 제대 앞에서 대답했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들이 혼인생활 안에서 언제나 한 몸을 이루겠다는 “예”다.

부부는 제대 앞에서 한 서약을 혼인생활 안에서 몸으로 반복적

52) 『사랑과 책임』, 309쪽.

53) 같은 책, 321쪽. 비가톨릭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가톨릭 신앙을 알려줄 수 있다. 비가톨릭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본 혼인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도 혼인의 깊은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54) Michael Waldstein, *op.cit.*, p.511(TOB 98:2).

55) 『가톨릭교회 교리서』, 1617항.

5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혼인예식서』, 1976, 62항.

으로 갱신한다. 사실상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말은 부부가 성적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완성된다. 부부는 성적 결합으로 이 서약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다.<sup>57)</sup> 부부는 날마다 함께한 서약을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사랑의 투신을 하도록 부름 받는다. 혼인생활 안에서 부부가 맞게 되는 어려운 시간은 부부가 함께 성장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초대며 기회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순간 부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누구든지 혼인 성소를 선택하는 사람은 창조주께서 “최초로 설정하신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선택이 결혼이든,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이나 동정이든 그 소명의 가치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한다.<sup>58)</sup> 두 성소 모두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할 때, 곧 자신의 몸이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혼인이 지닌 소명의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 때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가치관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혼인 서약의 변치 않는 의미는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선물로 받게 되는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며 생명과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부행위는 언제나 부부일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부부일치 안에는 언제나 생명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참된 인격적 수준에서 출산과 사랑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59)</sup>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 혼인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혼인 안에서의 성과 생명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혼인 서약에 담겨 있는 약속의 의미가

57) Michael Waldstein, *op.cit.*, p.532(TOB 103:2).

58) *Ibid.*, p.434(TOB 79:6). 그리스도적 계시는 인간이 사랑의 소명을 실현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 곧 혼인과 동정 또는 독신을 인정한다. 둘 중의 어느 것이나 적절한 형태를 유지하는 한,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진리의 실현이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실현이다(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 11항).

59) 『사랑과 책임』, 326쪽.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고민하고 결정한다면 혼인생활 안에 충만히 내재하고 있는 은총의 선물을 더욱 충만하게 발견하며 살아갈 것이다. 13기에서 젊은이들은 혼인을 성사로, 아름답고 충만한 삶의 초대로, 귀 기울여 응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p><b>제14기 부모됨 — 무슨 뜻인가?</b></p> <p>&lt;생명의 신비&gt;<sup>60)</sup>를 보여 준다. (아직 이 비디오를 보여 주지 않은 경우)</p> <p><b>토의</b></p> <p>A. 역할의 본보기로서 B. 과제들</p> <p>1. 양육하기 2. 소유인가? 열린 마음으로 보살핌인가? C. 인공임신 기술과 부모됨 (참조: 고등학생을 위한 틴스타 단원 13, 그리고 ‘베이비 M — 냉정한 계약’<sup>61)</sup>)</p>
--

## 8) 부모됨\*

14기에서 젊은이들은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소유물인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보살펴 주어야 할 하느님의 선물인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출산과 관련된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복제, 대리모, 유전자 진단, 난자와 정자 매매 등 인간의 몸을 ‘대상화’하거나 ‘수단화’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인간의 몸이 실험을 위한 재료의 생산처로 전락하거나 인간 생명이 상거래의 상품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sup>62)</sup> 더불어 인간 생명을 소유적인 의미로 바라

60) 동영상 <생명의 신비>는 수정의 순간부터 탄생까지 인간 생명의 신비롭고 경이로움을 담고 있다.

61) 같은 과제, 94-95쪽.

62) 신수정, 「인간배아 연구로 인해 도전받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 소고」, 서강대학교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학위논문, 2010, 36쪽.

보는 시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시험관 대리모 시술 규모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며, 대리모 계약과 시술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 침해가 횡행하고 있다.

1987년 미국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있었다.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아 주기로 한 대리모가 출산 뒤 마음을 바꿔 아이를 자신이 기르겠다고 나서면서 발생한 법적 소송으로 법원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베이비 M’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된다.<sup>63)</sup>

생명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리된 사랑과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생명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한 냉정한 계약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더욱 하락시키며 우리를 끝나지 않는 분쟁의 미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체외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체내인공수정 등 생명과 사랑이 분리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인공피임, 인공수정 등 모든 인공적인 생명조작 행위는 ‘자연의 힘에 대한 지배’에 따르는 것으로 인간 인격을 ‘조작의 대상’으로 위협하는 방법이다.<sup>64)</sup> 요한 바오로 2세가 가르치는 참다운 부모됨의 영성 안에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황 바오로 6세의 「인간 생명」 회칙의 가르침과 동일 선상에서 부부애와 부모됨의 의의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 이 두 가지 면을 준수한다면 부부행위는 전적으로 참된 부부애의 의의와 인간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사명인 어버이에로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sup>65)</sup>

63) 같은 교재, 94-95쪽(참조: 『워싱턴포스트』, 1987년 3월 18일자).

64) Michael Waldstein, *op.cit.*, pp.629-631(TOB 122:2-3; 123:1).

요한 바오로 2세는 참다운 부모의 책임감을 지적하면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본능과 감정의 충동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책임이란 필요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심사숙고 뒤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많은 자녀를 두기로 결정하든지 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윤리 원칙을 지키면서 일정 기간 또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 다른 자녀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sup>65)</sup>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혼인 서약 안에서 부부에게 내려진 축복이다. 이 축복은 기쁨 때나 어려울 때나 온전히 가족을 선물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조건적인 헌신의 삶을 실천할 때 더욱 풍요롭게 체험되는 은총이다. 열린 마음으로 보살피는 자녀 사랑 안에서 가장 성장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 자신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의 선물이 되며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상거래의 대상일 수 없으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필요할 때 준비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자녀는 온전한 선물로서 보내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소중한 선물이다. 생명이 여자의 힘만으로 혹은 남자의 힘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숨겨져 있다.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안다. 생명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랑과 생명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 5. 나가는 말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에 관해서, 특별히 인간 몸에 관해서 “계

65) 교황 바오로 6세, 「인간 생명」(*Humanae Vitae*), 12항.

66) Michael Waldstein, *op.cit.*, pp.627-628(TOB 121:5-6)[참조: 「인간 생명」(*Humanae Vitae*), 10항].

시된 것을 해석하는 데는 육체적인 인간의 경험에 의해 주로 인식되기에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서 해석하면 창세기의 객관적 가르침이 더욱 풍요롭게 이해될 수 있다.”<sup>67)</sup>고 『몸의 신학』에서 말한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의 새로운 시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몸의 신학』의 새로운 접근은 성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성(性)의 본성과 중요성, 인격의 조화로운 성숙을 향한 가르침으로 적용되어 전달될 수 있다.

사랑과 성에 대한 교육은 인격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고, 따라서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요소들의 통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인격 형성’을 위한 진정한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와 느낌과 감정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사랑과 성생활이 성숙하려면 정숙, 절제,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한 개방성 등의 덕을 갖춘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sup>68)</sup>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의 접근이나 피임 방법 혹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서 어떻게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의 가르침이 성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몸과 성(性)에 대한 이해, 생명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줄 수 있다고 본다.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안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의 가르침은 각 기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안에 녹아 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체험하는 경험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로서 자신의 몸이 의미하는 혼인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 몸을 지닌 인간으로서 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때 그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하게 되는지 성찰하게 된다.

67) *Ibid.*, p.145(TOB 4:5).

68) 교황청 가정평의회, 「인간의 성(性), 그 참모습과 참뜻」(*The Truth and Meaning of Human Sexuality*), 1995, 35항.

인간 몸에 새겨진 혼인적 의미를 창조주가 만드신 원모습대로 회복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신앙이 추구하는 하늘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몸의 신학』을 가르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곧 몸을 지닌 인간의 궁극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몸의 신학』을 성찰한 목적이다.

성교육 틴스타 프로그램 역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진실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몸과 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해 준 가르침이 바로 『몸의 신학』이다.

『몸의 신학』은 이 땅과 이 문화 안에서, 보편성을 띄고 성과 혼인의 참된 가르침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성교육 현장에서 성교육의 목표 안에 그 가르침이 녹아 스며들어야 한다. 또한 성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가 바로 ‘몸의 신학자’로서 살아야 한다. 성교육자가 몸의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몸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성찰한 바를 실천하며 성교육 현장에 전달할 때 가능하게 된다.

성(性)교육의 다양한 주제 안에서, 『몸의 신학』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몸의 신학』은 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주제에 있어 인간학적이며 신학적인 반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의 신학』은 살아 낼 수 있는 신학이며, 몸으로 보여 주며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다. 『몸의 신학』이 사랑의 교육인 성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 올바르게 젊은이들에게 적용될 때, 젊은이들을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되며 그들의 사랑을 성숙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 문헌]

### 1차 문헌

- John Paul II,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index by Michael Waldstein, Boston: Pauline, 2006.
- \_\_\_\_\_, *The Theology of the Body. Human Love in the Divine Plan*, Foreword by John S. Grabowski, Boston, MA: St. Paul Books and Media, 1997.
- West, Christopher, *Theology of the Body Explained: A Commentary on John Paul II's "Gospel of the Body"*, Boston: Pauline, 2003.

### 2차 문헌

- 교황 바오로 6세, 『인간 생명』(*Humanae Vitae*), 1968.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
- \_\_\_\_\_,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
- \_\_\_\_\_,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1985.
- \_\_\_\_\_, 『여성의 존엄』(*Mulieris Dignitatem*), 1988.
- \_\_\_\_\_,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
- \_\_\_\_\_, 『가정 교서』(*Gratissimum Sane*), 1994.
- \_\_\_\_\_,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 교황 베네딕도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Deus Caritas Est*), 2005.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 \_\_\_\_\_, 『교육의 중요성』(*Gravissimum Educationis*), 1965.
- 교황청 신앙교리성, 『생명의 선물』(*Donum Vitae*), 1987.
- \_\_\_\_\_,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1987.
- \_\_\_\_\_, 『인간의 존엄』(*Dignitas Personae*), 2008.
- 교황청 가정평의회, 『인간의 성(性) 그 참모습과 참뜻 - 가정교육을 위한 지침』(*The Truth and Meaning of Human Sexuality*), 1995.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2009.
- \_\_\_\_\_, 『혼인예식서』, 1976.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랑과 책임』, 김을 옮김, 뉴멘, 2010.

- 로날드 롤하이저, 『거룩한 갈망』, 한현 옮김, 참사람되어, 2004.
- 성 이냐시오(로올라),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005.
- 앤서니 퍼시, 『쉽게 쓴 몸의 신학』, 김한수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 Evelyn Eaton Whitehead and James D. Whitehead, 『그리스도인의 성과 사랑』, 최성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0.
- Healy Mary, *Men And Women are from Eden*, Servant Books, 2005.
- 신수정, 「인간배아연구로 인해 도전받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 소고」, 신학석사 학위논문, 서강대학교신학대학원, 2010.
- 맹광호, 「바오로 6세 교회의 회칙 「인간 생명」 반포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운동본부, 2008.
- 배미애, 「청소년 성교육의 새로운 접근」, 『한국가톨릭의료협회지』, Vol.2, 2004.
- 이동호, 「몸의 신학으로 초대」, 『경향잡지』, 2010년 1~12월.
- 진미정·정혜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의 영향추세 연구: 2005,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2010).
- 한국틴스타, 「틴스타 — 교사용 교재」, 한국틴스타본부, 2010.
- 한국틴스타,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 자료집」, 2010.

## 국문초록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의 접근이나 피임 방법 혹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인격을 지닌 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의 가르침은 성교육 프로그램인 틴스타 안에서, 특별히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안에서, 그 가치관과 영성으로 성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보일 것이다.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을 통해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에서 제시하는 성과 생명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이 담고 있는 혼인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진실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실현하도록 돕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천적인 면을 도출하려는 시도다.

성교육(틴스타)의 다양한 주제 안에 『몸의 신학』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몸의 신학』은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성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몸의 신학』이 사랑의 교육인 성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 젊은이들을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학문적 작업이라고 확신한다.

▶ 주제어: 몸, 혼인, 인격, 성(性), 틴스타.